

2026 년 제 2 회 전주 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

팔복동을 읽는 7 개의 레이어

외곽 산업지대에서 공존의 전이공간으로

SOLID	GAP	BUFFER
-------	-----	--------

들어가며

이 자료는 '정답'이 아니라 '지역을 읽는 관점'입니다

2026 년 제 2 회 전주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공모전의 대상지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일대입니다.

팔복동은 한 가지 모습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은 과거 전주시 외곽의 농촌마을이었고, 교통의 길목이었으며, 이후 전주를 대표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된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성장에 따라 전주시의 시가지가 점차 외연을 넓혀가면서, 과거 외곽에 위치했던 팔복동은 기존 시가지와 신도시권, 산업지역과 주거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예술공간이 만나는 전이공간으로 성격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매끄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팔복동에는 여전히 강한 산업단지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전주천과 녹지, 철도와 간선도로, 오래된 마을과 대규모 공장부지, 문화예술 거점과 유희공간이 함께 존재합니다.

어떤 곳은 단절되어 있고, 어떤 곳은 비어 있으며, 어떤 곳은 새롭게 연결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낙후된 산업지역"이나 "도시재생 대상지"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팔복동은 여러 시간과 공간, 기능과 생활이 겹쳐 있는 복합적인 도시공간입니다.

이 자료는 공모 참가자들이 팔복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공간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자료에 제시된 내용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팔복동을 읽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I. 공모 대상지로서 팔복동의 의미

1. 공모주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에서 공존으로 공간을 재편하다 : SOLID · GAP · BUFFER

이 주제는 단순히 끊어진 공간을 연결하자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팔복동에 이미 존재하는 강한 구조, 그 사이에 생겨난 틈, 그리고 서로 다른 기능들이 충돌하지 않고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완충과 매개의 방식을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입니다.

- **SOLID**
 - 팔복동에 오래 남아 있는 강한 구조
 - 산업단지, 준공업지역, 철도, 간선도로, 대규모 필지, 공장, 오래된 마을 등
 - 쉽게 사라지거나 바뀌지 않는 물리적·제도적 조건
- **GAP**
 - 강한 구조들 사이에 생긴 틈과 단절
 - 빈집, 유휴공간, 보행 단절, 산단과 주거지 사이의 경계, 문화거점과 생활공간의 거리 등
 - 방치되어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공간
- **BUFFER**
 - 서로 다른 공간과 기능이 공존하도록 돕는 완충·매개 장치
 - 산업과 주거, 자연과 도시, 주민과 근로자, 기존 공간과 신규 정책을 연결하는 공간적·프로그램적 해법

이번 공모전에서 중요한 것은 팔복동의 문제를 단순히 제거하거나 덮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동이 가진 고유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사이의 틈을 발견하며, 충돌을 공존으로 바꾸는 공간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2. 공모 참가자가 팔복동을 바라보는 기본 태도

팔복동을 읽을 때에는 다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팔복동을 '낙후지역'으로만 보지 않기

팔복동에는 노후 산업단지, 오래된 주거지, 빈집과 유휴공간, 보행환경의 제약 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팔복동을 설명하면 지역의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팔복동은 전주의 산업화 과정을 담고 있는 장소이며, 전주천과 녹지, 팔복예술공장, 기존 마을, 산업유산, 신규 정책사업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둘째, 팔복동을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보지 않기

팔복동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공간이 겹쳐 있습니다.

- 공장과 산업단지
- 노후 주거지와 기존 마을
- 전주천과 자연경관
- 철도와 간선도로
- 팔복예술공장과 문화예술 거점
- 청년문화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 신규 사업
- 빈집, 유희공간, 경계부, 보행 단절 구간

따라서 팔복동은 하나의 색깔을 가진 공간이 아니라, 여러 레이어가 중첩된 공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셋째, '연결'보다 '공존'을 고민하기

기존의 도시재생 아이디어는 종종 "연결"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팔복동에서는 단순히 길을 잇거나 공간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주거지는 서로 가까이 있지만, 이용자와 시간대, 환경적 요구가 다릅니다. 문화거점과 마을도 물리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지만, 실제 이용층은 분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환경 역시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산업지역과 생활공간 사이의 완충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모전에서는 "무엇을 연결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함께 존재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II. 팔복동을 읽는 7 개의 레이어

Layer 1. 위치의 레이어

전주시 외곽에서 북부권 전이공간으로

1. 과거의 팔복동: 전주시 외곽의 농촌·산업입지

팔복동은 본래 전주부성과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중심부라기보다는 전주 외곽의 마을, 들판, 교통로가 결합된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외곽성은 이후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공장과 산업시설은 일반적으로 기존 시가지 중심부보다는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주거 밀도가 낮은 외곽지역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복동 역시 전주시 외곽이라는 입지적 조건 속에서 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 과거 성격
 - 전주시 외곽 농촌지역
 - 교통로와 철도 주변의 통과공간
 - 넓은 부지와 낮은 도시 밀도
 - 산업시설 입지에 적합한 주변부 공간

2. 현재의 팔복동: 도시 확장 속의 내부화된 산업지대

20 세기 후반 이후 전주시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북부·서북부 방향으로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여의지구 등 새로운 개발축이 형성되면서 팔복동의 위치적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외곽의 산업입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전주시의 확장된 도시구조 안에서 기존 시가지와 신개발지를 잇는 중간지대가 되었습니다. 즉, 팔복동은 더 이상 단순한 외곽이 아니라 전주시 북부권의 진입부이자 통과부, 그리고 여러 도시기능이 만나는 전이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팔복동이 현재 적극적인 의미에서 “관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치상으로는 북부·서북부 신개발지와 기존 전주시가지 사이에 놓여 있으며, 향후 공간디자인과 도시재생을 통해 전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생각해볼 지점

- 팔복동은 전주시의 '끝'이 아니라, 북부권 신개발지와 기존 시가지를 잇는 전이공간으로 볼 수 있는가?
- 팔복동을 단순한 통과공간이 아니라 머무르고 연결되는 공간으로 바꾸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Layer 2. 시간의 레이어

농촌마을, 교통로, 산업단지가 겹쳐진 장소

1. 팔복동은 처음부터 산업단지가 아니었습니다

팔복동을 현재의 산업단지 이미지로만 보면 지역의 시간적 깊이를 놓치게 됩니다. 팔복동은 본래 농촌마을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주부성과 거리가 있는 외곽지역이었고, 주변에는 마을과 들판, 하천, 교통로가 존재했습니다.

팔복동의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촌마을
- 교통의 요지
- 철도와 도로
- 산업화
- 도시화
- 마을공동체의 변화
- 산업단지와 주거지의 공존

2. 교통의 길목이었던 팔복동

팔복동은 전주 외곽에 있었지만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호남대로, 전군가도, 철도 등 교통축과 관련된 흔적이 지역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의 성격은 이후 산업입지와의 연결됩니다.

공장 and 산업단지는 원료와 제품의 이동, 노동력의 접근, 도시와 외부지역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팔복동의 교통 조건은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데 일정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3. 산업화와 공간의 재편

1960년대 후반 이후 팔복동은 본격적인 공단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1968 년 전주제지가 팔복동 3 가 일대에 공장 설립
- 1969 년 삼양사가 팔복동 1 가 일대에 폴리에스테르 생산 공장 설립
- 도로망과 사택 등이 조성되며 전주 제 1 산업단지 확장
- 1985~1987 년 전주 제 2 산업단지 조성
- 이후 섬유, 기계, 화학, 식품 등 공산품 생산 기업들이 입주

산업단지 조성은 팔복동의 공간구조를 크게 바꾸었습니다. 일부 마을은 해체되거나 이전되었고, 일부 마을은 산업단지 주변의 주거지로 남았습니다. 구주마을, 신복마을, 추천마을 등은 산업단지와 가까운 생활공간으로 자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복동은 “농촌마을”에서 “산업도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지명, 마을 기억, 주민 이야기, 기존 주거지의 형태 속에 과거의 시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 산업단지의 성장, 노후화, 그리고 새로운 전환

1960 년대 후반부터 1980 년대에 이르기까지 팔복동은 전주의 주요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주제지와 삼양사 등 주요 공장이 입지하고, 전주 제 1 산업단지와 제 2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팔복동은 전주 산업화를 이끈 핵심 공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팔복동은 공장, 철도, 도로, 사택, 주거지가 함께 형성되며 농촌마을에서 산업도시 공간으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존 제조업 기반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팔복동 산업단지에도 노후화와 활력 저하가 점차 누적되었습니다. 일부 기업의 이전·축소, 유휴공간 증가, 산단 경관의 노후화, 주거지와 산업시설 사이의 환경적 갈등,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공간 부족 등이 복합적인 과제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팔복동은 다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 노후산단 재생
- 스마트그린산단
-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 청년문화센터
- 복합문화시설
- 팔복예술공장
-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변화는 팔복동을 과거의 산업단지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 문화예술, 근로자·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자연·경관 회복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복동은 단순히 쇠퇴한 산업지역이 아니라, 산업화의 기억과 노후산단의 과제, 그리고 미래적 전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환기의 공간입니다.

5. 생각해볼 지점

- 팔복동의 오래된 공장·철도·창고·담장·길은 단순한 노후시설인가, 지역의 기억을 담은 자원인가?
- 과거의 산업화 흔적을 현재의 공간디자인과 미래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Layer 3. 산업의 레이어

노후산단에서 미래산업 전환지로

1. 전주 산업화의 핵심 공간

팔복동은 전주의 대표적인 산업지역입니다.

전주 제 1 산업단지와 제 2 산업단지는 오랜 기간 전주의 제조업 기반을 담당해왔습니다. 제지, 섬유, 화학, 기계, 식품 등 다양한 제조업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산업단지는 단순히 공장만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산업단지에는 근로자의 일상, 물류와 교통, 기업활동, 지역경제, 환경문제, 정주여건이 함께 얹혀 있습니다. 팔복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하나의 경제시설이 아니라 도시공간의 중요한 레이어로 보아야 합니다.

2. 기존 제조업 기반의 노후화와 산업 전환 필요성

팔복동 산업단지는 한때 전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산업시설의 노후화, 제조업 환경의 변화, 기업활동의 위축, 근로자 정주여건 부족 등 여러 과제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 일부 기업의 이전·축소와 산업활력 저하
- 청년층 유입 부족

- 근로자를 위한 생활·문화·휴식공간 부족
- 산단 이미지 저하와 경관 노후화
- 주변 주거지와의 환경적·공간적 갈등

산업단지가 활발히 작동하던 시기에는 공장과 생산활동 자체가 지역의 활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존 산단의 노후화가 누적되면서, 팔복동은 단순히 공장이 밀집한 지역을 넘어 새로운 기능과 환경을 요구받는 산업도시 공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팔복동의 산업 레이어는 쇠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산업기반을 어떻게 재편하고 미래산업, 생활환경, 문화적 가능성과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스마트그린산단과 산업 전환

최근 전주 일반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를 디지털·저탄소 기반의 산업공간으로 바꾸려는 흐름입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전환
- 저탄소·고효율 인프라 구축
- 통합관제센터 구축
-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 스마트제조 인력양성
- 정주여건 개선

이 변화는 팔복동의 산업단지를 과거형 제조업 공간에서 미래형 산업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공모 참가자는 이러한 산업 전환을 단순한 정책사업으로만 보지 말고, 공간디자인의 중요한 배경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4.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 레이어

팔복동 일대에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소소재, 첨단산업, 신산업은 팔복동 주변 산업공간의 미래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기존 노후산단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팔복동 일대의 산업적 정체성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산업단지

- 스마트그린산단
- 탄소소재 국가산단
- 기회발전특구
- 첨단복합산업
- 청년문화·창업공간

이 레이어들이 함께 작동할 때, 팔복동은 단순한 노후산단이 아니라 산업 전환의 실험지가 될 수 있습니다.

5. 생각해볼 지점

- 산업단지는 차단해야 할 대상인가, 새롭게 열고 재해석할 수 있는 공간인가?
- 오래된 산업시설과 산단 경계부는 철거·차폐의 대상인가, 산업유산과 공공디자인의 자원인가?
- 산업 전환의 흐름을 근로자·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Layer 4. 생활의 레이어

산업단지 안팎의 주거지와 주민 삶

1. 팔복동은 일터이면서 삶터입니다

팔복동은 산업단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팎에는 주민의 생활공간이 존재합니다. 신복마을, 추천마을, 구주마을 등 기존 주거지는 산업단지와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팔복동의 생활 기반을 이루어왔습니다.

따라서 팔복동은 단순한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공장과 마을, 근로자와 주민,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이 함께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점은 팔복동 공간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디자인은 기업과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주거지와 주민의 일상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산업단지와 주거지의 가까운 거리

팔복동의 특징 중 하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점과 문제를 동시에 가집니다.

가능성

-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SOC 조성 가능
- 산업단지 주변에 커뮤니티 거점 형성 가능

- 공장과 마을의 관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음
- 산업유산과 생활문화가 결합된 로컬 콘텐츠 가능

과제

- 소음, 분진, 차량통행 등 환경적 부담
- 보행 안전과 접근성 문제
- 산단 경계부의 삭막한 경관
- 마을 내부의 노후화와 빈집
- 주민 생활권과 산업활동의 충돌
- 근로자와 주민 이용공간의 분리

3. 청년·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최근 팔복동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와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문화센터와 복합문화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산업단지를 단순히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머무르고 쉬고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내스포츠시설
- 카페
- 공연장
- 교육시설
- 청년창업공간
- 야외 체육시설
- 공영주차장
- 야외공원 및 휴게공간

이러한 사업은 공모 참가자에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팔복동의 생활 레이어는 단순히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청년·방문객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생활환경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4. 생각해볼 지점

- 팔복동의 주민·근로자·청년은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시간과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 산업단지 주변의 길, 공터, 경계부를 생활·휴식·교류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Layer 5. 자연·경관의 레이어

전주천과 녹지축이 만드는 완충 가능성

1. 산업지역 속 자연환경

팔복동은 산업단지 이미지가 강하지만, 자연환경과 경관자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천, 추천대, 황방산 등은 팔복동을 둘러싼 중요한 자연·경관 요소입니다.

이 자연자원은 단순히 보기 좋은 배경이 아닙니다.

산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고, 보행과 휴식, 생태, 경관, 커뮤니티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주천의 가능성

전주천은 팔복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연축입니다.

하천은 도시에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경관자원
- 생태축
- 보행축
- 자전거 이동축
- 휴식공간
-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의 완충공간
-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연자원

공모 참가자는 전주천을 단순히 "하천변 정비"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팔복동의 여러 공간을 이어주는 자연 기반의 공존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3. 산업경관과 자연경관의 대비

팔복동의 흥미로운 점은 산업경관과 자연경관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 공장과 하천
- 철도와 녹지
- 산업단지와 산
- 노후 주거지와 자연경관

- 문화예술공간과 생태공간

이러한 대비는 팔복동만의 공간적 개성입니다. 디자인은 이 대비를 숨기기보다, 적절히 드러내고 조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의 거친 재료감과 전주천의 생태적 이미지를 결합한 공공디자인, 공장 담장과 녹지를 결합한 경계부 디자인,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하천변 휴게공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4. 완충공간으로서의 자연

이번 공모전의 BUFFER 개념은 자연·경관 레이어와 잘 맞습니다.

자연은 산업과 주거의 충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완충재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장과 마을 사이의 녹지 완충
- 보행로와 휴식공간의 결합
-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정원
- 하천변 커뮤니티 공간
- 산단 경계부의 생태적 공공디자인
- 도시숲과 산업단지의 연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 서로 다른 공간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5. 생각해볼 지점

- 전주천과 녹지축은 팔복동의 산업경관과 생활공간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장치가 될 수 있는가?
- 산업경관과 자연경관의 대비를 팔복동만의 공간디자인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가?

Layer 6. 문화·예술의 레이어

팔복예술공장과 미래문화도시의 실험지

1. 산업유산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팔복동의 중요한 문화자원 중 하나는 팔복예술공장입니다.

팔복예술공장은 노후 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공간은 팔복동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산업유산과 문화예술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팔복예술공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산업시설의 재생 사례
- 문화예술 창작공간
- 팔복동의 장소 이미지 전환
- 산업단지와 문화공간의 공존 가능성
- 방문객을 유입하는 문화거점
- 지역 브랜딩 자원

2. 문화도시 계획 속 팔복동

전주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 전통문화도시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문화도시로 확장하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복동은 중요한 앵커 공간으로 설정됩니다.

특히 팔복예술공장을 거점으로 팔복동 노후산단 일대에서 미래문화콘텐츠, 융합예술, 문화관광,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팔복동을 단순히 “산업단지 재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이 만나는 실험지로 바라보게 합니다.

3. 문화도시 계획 속 '실감예술산단 팔복' 구상

문화도시 계획에서 제시된 “실감예술산단 팔복”은 팔복동의 문화·예술 레이어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노후산단의 산업적 장소성, 팔복예술공장의 문화적 가능성,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문화콘텐츠를 결합하려는 방향입니다.

공모 참가자는 이 흐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를 문화예술의 배경으로 활용
- 공장, 철길, 창고, 담장 등 산업경관을 콘텐츠 자원으로 재해석
- 야간경관, 미디어아트, 실감콘텐츠 등과 공간디자인 결합
- 팔복예술공장과 주변 마을·산단·전주천을 연결
- 방문객만을 위한 문화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근로자가 함께 쓰는 문화공간 구상

4. 문화거점과 생활공간의 거리

다만 문화거점이 있다고 해서 지역 전체가 곧바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예술공장과 같은 거점이 주변 마을, 산업단지, 자연환경, 보행동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화공간이 하나의 점으로만 존재하면 주변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 아이디어에서는 문화거점을 주변 생활공간과 연결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 팔복예술공장과 마을을 잇는 보행경로
- 문화공간과 산업단지 근로자의 일상 연결
- 전주천과 문화공간의 연계
-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산업유산을 활용한 로컬 콘텐츠
- 야간에도 안전하고 매력적인 경관 조성

5. 생각해볼 지점

- 팔복예술공장은 주변 마을·산업단지·전주천과 연결되는 열린 문화거점이 될 수 있는가?
- 산업경관과 문화예술을 결합해 팔복동만의 장소성을 만들 수 있는가?

Layer 7. 전환의 레이어

SOLID·GAP·BUFFER 로 다시 읽는 팔복동

1. 팔복동의 SOLID

SOLID 는 팔복동에 이미 존재하는 강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팔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팔복동의 SOLID 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전주 제 1·2 산업단지
- 준공업지역이라는 토지이용 구조
- 대규모 공장부지와 필지
- 철도와 간선도로
- 오래된 마을과 주거지
- 전주천과 자연지형
- 산업단지의 담장과 경계
- 팔복예술공장 같은 거점공간

- 산업도시로서의 기억과 이미지

SOLID 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구조는 때로 단절을 만들지만, 동시에 지역의 고유한 개성과 잠재력을 담고 있습니다. 공모 참가자는 SOLID 를 무조건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2. 팔복동의 GAP

GAP 은 SOLID 사이에서 생겨난 틈입니다.

팔복동에는 여러 종류의 틈이 존재합니다.

-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의 공간적 틈
- 공장 담장과 보행로 사이의 경관적 틈
- 문화거점과 주민 생활공간 사이의 이용자 틈
- 전주천과 산업단지 사이의 접근성 틈
- 빈집과 유휴공간
- 보행이 불편하거나 끊기는 구간
-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통과공간
- 과거 산업도시 이미지와 미래문화도시 이미지 사이의 인식 차이

GAP 은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틈은 새로운 디자인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빈집, 유휴공간, 경계부, 보행 단절구간은 팔복동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공모 아이디어가 작동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3. 팔복동의 BUFFER

BUFFER 는 서로 다른 공간과 기능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팔복동에서 BUFFER 는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와 주거지 사이의 녹지·보행 완충공간
-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거점
- 전주천과 산단을 연결하는 생태·휴식 동선
- 팔복예술공장과 마을을 잇는 문화적 매개공간
- 공장 담장을 활용한 경관 개선과 공공디자인
- 빈집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작은 공유공간

- 산업유산을 재해석한 벤치, 조명, 안내체계, 파사드 디자인
- 청년문화센터와 복합문화시설을 주변 생활권과 연결하는 프로그램
- 산단 근로자, 주민, 청년, 방문객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열린 공간

BUFFER 는 “중간에 남는 공간”이 아니라, 공존을 설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4. 연결에서 공존으로

팔복동에서 연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의 목표는 연결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길을 잇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함께 쓰는 사람들의 관계, 시간대별 이용방식, 환경적 부담, 지역의 기억, 산업활동과 생활활동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팔복동의 공간디자인은 다음 방향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 단절된 공간을 연결하되,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기
- 유휴공간을 채우되, 지역의 기억을 지우지 않기
- 산업단지를 열되, 산업활동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기
- 문화공간을 만들되, 주민의 생활과 분리하지 않기
- 자연을 활용하되, 장식이 아니라 완충과 회복의 장치로 쓰기
- 새로운 방문객을 유도하되, 기존 주민과 근로자의 일상을 함께 고려하기

5. 생각해볼 지점

- 팔복동에서 발견되는 SOLID 는 문제인가, 자원인가, 혹은 둘 다인가?
- 팔복동의 GAP 은 비워둘 틈인가, 연결할 틈인가, 새롭게 채울 틈인가?
- 나의 제안은 산업·주거·자연·문화 중 무엇을 공존하게 만드는 BUFFER 가 될 수 있는가?

Ⅲ. 팔복동의 주요 현황 요약

1. 도시구조 현황

- 팔복동은 과거 전주시 외곽의 농촌지역이자 산업입지였습니다.
- 현재는 전주시 북부·서북부 확장축과 기존 시가지를 잇는 전이공간입니다.
-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여의지구 등 신개발지와 원도심 사이에 위치합니다.
- 산업단지, 주거지, 자연환경, 문화예술공간이 중첩된 복합공간입니다.

2. 역사·장소성 현황

- 팔복동은 농촌마을, 교통로, 철도, 산업단지가 시간적으로 겹쳐진 지역입니다.
- 1960년대 후반 이후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공간구조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 마을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일부는 산업단지 주변 주거지로 남았습니다.
- 주민 기억과 마을 이야기는 팔복동의 중요한 장소자원입니다.

3. 산업 현황

- 전주 제 1·2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 기존 산업단지는 시설 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스마트그린산단, 탄소소재 국가산단, 기회발전특구 등 산업 전환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저탄소·첨단산업 전환과 정주여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4. 생활·정주 현황

- 산업단지 주변에는 기존 마을과 주거지가 남아 있습니다.
- 주민과 근로자, 청년, 방문객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팔복동을 이용합니다.
- 노후 주거지, 빈집, 보행환경, 생활편의시설 부족 등이 주요 과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청년문화센터와 복합문화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 자연·경관 현황

- 전주천, 추천대, 황방산 등 자연·경관 자원이 존재합니다.
- 자연환경은 산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천과 녹지, 보행공간, 휴식공간을 연계한 디자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문화·예술 현황

- 팔복예술공장은 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한 대표 사례입니다.
- 대한민국 문화도시 계획에서 팔복동 노후산단 일대는 중요한 앵커 공간으로 제시됩니다.
- 실감예술산단 팔복, 미래문화콘텐츠, 문화관광, 시민문화향유 등이 주요 정책 레이어로 중첩됩니다.

7. 공간디자인 과제

팔복동의 공간디자인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와 주거지의 경계 완화
- 보행환경 및 접근성 개선
- 빈집·유휴공간 활용
- 전주천과 자연경관 연계
- 팔복예술공장과 주변 생활공간 연결
- 산업유산의 재해석
- 근로자·주민·청년·방문객이 함께 쓰는 공간 조성
- 신규 정책사업과 지역 생활권의 연계
- SOLID·GAP·BUFFER 를 활용한 공존형 공간디자인

IV. 마무리

팔복동은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전환 중인 공간'입니다

팔복동은 한 번에 정의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곳은 전주시 외곽의 농촌마을이었고, 교통의 길목이었으며, 산업화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와 산단 노후화, 주거지의 변화, 자연환경의 가능성, 문화예술 거점의 형성, 미래산업 정책과 도시재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팔복동의 현재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번 공모전에서 필요한 것은 팔복동을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동 안에 겹쳐 있는 여러 레이어를 읽고, 그 사이의 틈을 발견하며, 서로 다른 기능과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적 해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팔복동의 SOLID 는 지역의 고유한 구조입니다.

팔복동의 GAP 은 새로운 개입이 가능한 틈입니다.

팔복동의 BUFFER 는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이번 공모전이 팔복동의 오래된 산업기억, 현재의 생활공간, 자연환경, 문화예술, 미래산업이 함께 작동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